

# 산불 4건중 1건은 논두렁 태우다... 영농 부산물 관리 필요

### 최근 10년간 3·6월에 60.2% 발생...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25.2% '부산물 파쇄기 임대' 고령화에 대여 기피...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야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네 건 중 한 건은 농촌에서 발생한 볏짚과 콩대 등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불로 이어지는 농민들의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해 부산물 파쇄기를 임대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의

60.2%는 3월과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 유형별로는 입산자 실화(33.1%)가 가장 높았고 이어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화인이 된 비율은 각각 12.6%였다.

또 담뱃불 실화(5.7%), 성묘객 실화(3%), 건축물 실화(6%) 등 인위적 산불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에서는 전체 화재 중 69%가 자연발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주요 화인 중 하나인 농민들의 소각 행위를 방지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단속에도 현장에서 소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파쇄기 임대사업과 영농부산물 수거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영농부산물의 양을 고려했을 때 역부족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농식품부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파쇄기 구매를 지원하고, 이를 무상 대여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으나 농산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고려하면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고령·소규모 농가들은 무거운 파쇄기를 직

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여를 기피하고 있다. 결국 불법인 줄 알면서도 눈치를 보가면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파쇄기 보급과 함께 농민들을 영농부산물 퇴비화 사업에 적극 동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내에서 부산물을 유기농 퇴비로 활용하는 이른바 순환농법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영농부산물 수거·처리사업에 인력과 예산 확충과 각 지자체 사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영농부산물 임의 소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역시 필요해 보인다. 연구원은 임의 소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도 고령화된 농민 실정을 고려해 감독기관이 제도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임의

소각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동시에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영농부산물을 '바이오 매스'로 자원화하는 것도 대책안으로 거론된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은 "발작물 영농부산물 등은 미활용 비율이 높으며, 잠재량을 에너지로 환산할 경우 국내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약 51.9%를 대체하는 등 에너지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며 "영농부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한다면 국내의 에너지 자급률 상승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달 초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신선농산물박람회(AFL) 내 한국홍보관을 찾은 해외 바이어가 한국 농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aT 제공>

## aT, 홍콩서 12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 아시아 최대 신선농산물 박람회... 44개국 740개 업체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달 초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신선농산물박람회(AFL)'에 참가해 12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AFL은 아시아 최대 신선농산물 전문 박람회로, 매회 1만 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여한다.

유통업체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높은 계약 성사율을 자랑하는 신선농산물 대표 마케팅 플랫폼으로 정평이 나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선 시장 확대와 전 세계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 이후 첫 개최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태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44개국 740여 업체가 참가했다.

신선농산물 대표 박람회답게 신선 무역, 유통, 기술 관련 세미나부터 비즈니스포럼, 탑프루트 시상식 등 여러 부대행사도 동시에 열렸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우수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11개사와 충남도 1개사, 경북도 2개사, 수출통합조직 8개사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구성해 포도, 배, 딸기, 버섯, 토마토 등 다양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을 홍보했다.

또 수출통합조직 홍보관을 설치해 현장 시식 등 직접 체험과 함께 한국 신선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출 확대와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현장 상담도 적극 추진해 총 12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권오엽 aT 수출식품부장은 "홍콩은 아시아 신선농산물 무역의 허브로서 전 세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시험 무대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 성과를 토대로 향후 홍콩 시장을 거점 삼아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전 세계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형사처벌

### 오늘부터 양곡 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곡 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수확한 쌀(구곡)을 올해 생산한 쌀(신곡)로 속여 팔거나 신곡과 구곡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을 통해 인터넷쇼핑몰에

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한다.

쌀의 생산 연도, 원산지, 도정 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미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심되는 경우 부정 유통 신고센터(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삼도농협 정재연·임복순 부부 '새농민상'

### 미맥류 기계화 영농단 운영...농식품부 장관상 수상도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17일 삼도농협 조합원 정재연(66)·임복순(62) 부부가 '제58회 새농민상' 본상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새농민상 본상은 전국 새농민상 수상자 중 매년 부부 20쌍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으로 정부 포상도 함께 수여된다.

정씨 부부는 43년간 성실함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영농활동에 매진해, 미맥류를 주 품목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운영하며 농촌지역 인력부족해

소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정씨 부부는 복합영농을 품소 실천하고 있는 선진농업인으로 지난 2014년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한 이후 미래농업인을 위한 영농기술교육과 신제품 공급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씨 부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많이 찾아와 미래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 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